

# 조선전기 경복궁 궐내각사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

이 정 국\*

(다리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대표)

주제어 : 경복궁, 근정전, 궐내각사, 행랑, 공간구성

## 1. 서론

조선시대의 궁궐건축은 당시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성리학적 덕목과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상징성과 기능성을 갖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공간들이 독자성을 가지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로 통합된 궁궐건축을 완성한다.

궁궐은 임금과 관료들과 함께 국가를 통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임금과 관료들의 동선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료들의 동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건물의 배치가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궁궐의 종합적인 공간구성과 동선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당시 궐내각사의 배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궐내각사라는 명칭은 세종실록 4년의 기록에 보인다.<sup>1)</sup> 궐내각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본 논문에서는 궐내에 독립된

관아건물을 가진 아문뿐만 아니라 궐외의 아문으로 궐내에 파견되어 일정한 공간을 사용하는 분사(分司)와 시위(侍衛)나 숙위(宿衛)에 관련된 조직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시기를 조선전기로 한정하였다. 조선초기 정궁으로 건설된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이후 270여 년 동안 중건되지 못하고 시간상의 단절이 있었으며 관련 자료도 거의 없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전의 경복궁의 공간구조를 알 수 없고 다만 조선 후기의 그림들로 임진왜란 이전의 상황을 추정하는 실정<sup>2)</sup> 이 시기의 연구는 궁궐건축의 통시성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간적으로는 경복궁의 중심영역에서 궐내각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부분의 궐내각사가 위치하고 있는 궁궐 서남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 교신저자, 이메일: ljk3491@hanmail.net

1) 『세종실록』 4년(1422) 10월 1일(을유), 여기에서는 ‘闕內各司’ 뿐만 아니라 ‘闕內諸司’라는 명칭도 사용되었다.

2) 이러한 그림들로는 景福宮圖(소더비경매 출품도면, 1767 - 1772), 景福宮全圖(삼성출판박물관, 1767 - 1772), 景福宮古圖(서울대중앙도서관, 영조이후), 景福宮全圖(강릉시립박물관, 영조이후), 景福宮圖(국립중앙도서관, 영조이후) 등이 있다. 文化財廳, 『景福宮 變遷史(上)』, 2007. 8, 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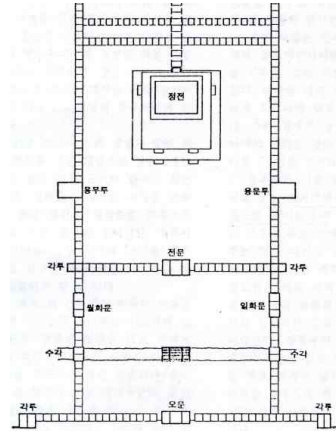
본 연구를 통해 경복궁 율내각사의 개략적인 배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당시 동선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2. 창건시의 경복궁의 건축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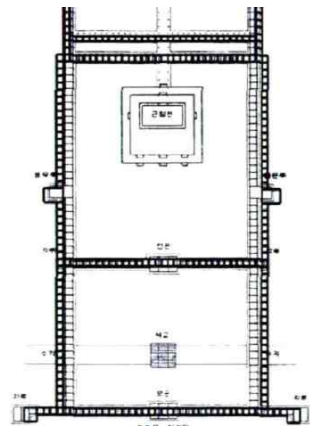
태조 4년 경복궁의 창건기록을 바탕으로 창건 당시의 경복궁 중심공간에 대한 추정복원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다.<sup>3)</sup> 처음에 杉山信三이 추정복원을 하였는데 김동욱은 이를 수정하여 새로운 배치안을 제시하였으며(그림 1)<sup>4)</sup>곽순조의 추정배치안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후 장재혁이 약간 변화된 추정배치안을 제시하였다.(그림 2)<sup>5)</sup>

김동욱과 장재혁의 추정배치안은 유사하지만 정전의 북랑과 보평청 동서랑이 만나는 부분과 정전 남문 좌우에 있는 각루의 돌출 여부에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율내각사와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고자 한다.

사료 2-1 正殿五間, … 北行廊二十九間, … 水刺間四間 … 殿門三間, 在殿之南左右行廊各十一間, 東西角樓各二間…<sup>6)</sup>



<그림 1> 추정배치도  
(부분, 김동욱)



<그림 2> 추정배치도  
(부분, 장재혁)

경복궁 창건기록인 사료 2-1에 의하면 정전 영역은 북행랑이 29칸이며 남쪽 부분은 전문 3칸, 좌우 행랑 각각 11칸, 각루 2칸으로 모두 29칸이 된다. 따라서 칸 수만으로 판단했을 때 동서 끝의 각루는 돌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3) 곽순조, 「宮闕運營을 통하여 본 朝鮮前期 景福宮의 配置特性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동욱, 「조선초기 창건 경복궁의 공간구성」,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통권 15호, 1998

김동욱, 「조선초기 경복궁 수리에서 세종의 역할」,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통권32호, 2002. 12

김동욱, 「조선초기 경복궁의 공간구성과 6조대로: 광화문 앞의 행사와 그 의미」,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통권59호, 2008. 8

윤정현, 「조선시대 궁궐 중심공간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2

이강근, 『경복궁』, 대원사, 서울, 1998. 8

장재혁, 「조선전기 경복궁의 건축형식에 관한 연구: 예사에서 나타나는 예제운영과 건축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2004. 2

조재모 「조선왕실의 정철개념과 변동」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計劃系, 제20권 제6호 통권 제188호, 2004. 6

杉山信三著, 韓國の中世建築, 相模書房, 1984

4) 김동욱, 위의 논문, 20쪽

5) 장재혁, 위의 학위논문, 90쪽

6) 태조 4년 을해(1395) 9월 29일(경신)

그리고 정전의 북행랑은 보평청의 남행랑이 아니었다. 즉 정전 북쪽 행랑의 개구부가 정전을 향해 나있다는 의미이다. 태종 때 풍저창과 광홍창에 야적한 곡식을 경복궁에 옮겨 쌓으려고 논의를 하는데 동서행랑 뿐만 아니라 북쪽 행랑(後廡)도 언급하고 있다.<sup>7)</sup> 따라서 경복궁 창건 당시 정전의 행랑은 동서남북 4면 모두 정전을 향해 개방되는 구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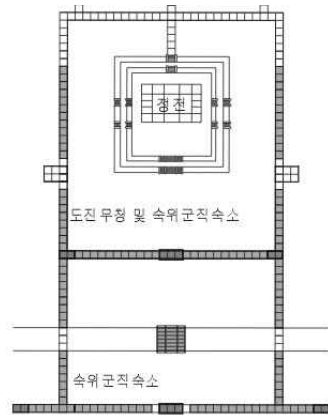
정전영역에는 수라간 4칸이 기록되어 있다. 오문(午門)의 동서행랑에 있는 수각도 ‘水閣三間’이라고 한 번만 기록된 것을 보면 수라간도 동서의 행랑에 위치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수라간을 동서로 양분할 경우 기능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 동루와 동쪽 행랑을 설명하기 전에 수라간을 서술한 것으로 보면 아마도 근정전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다.

경복궁이 준공되었던 때는 태조 4년 9월이며 태조 6년 4월에는 궁실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니 미비한 것은 후일에 하고 공역을 정과(停罷)하라는 명령이 있는 것을 보면<sup>8)</sup> 경복궁 창건 이후에도 영건활동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런데 경복궁 주위의 궁성을 쌓는 것은 태조 7년 1월부터이다. 이때 남문에 나가 궁성 쌓을 터를 순시하고 있다.<sup>9)</sup> 즉 창건 당시에는 물론이고 이때까지도 궁성은 없었다. 창건 이후 이때까지 궁성이 없었는데 중심영역을 건설한 이후 궁성 쌓기를 서두르지 않았던 것은 내전과 정전 주위를 둘러싼 행랑이 방위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건국하여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인 점을 고려해보면 이 행랑들은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행랑 여러 곳에 각루를 설치한 것도

이러한 이유로 판단된다.

사료 2-2 친군위 도진무 조온(趙溫)도 또한 대궐 안에 숙직하고 있었는데, …… 정안군이 조온에게 명하여 숙위하는 갑사(甲士)를 다 나오게 하니 …… 이에 근정전 이남의 갑사는 다 나와서 ……<sup>10)</sup>

사료 2-2에 의하면 친군위 도진무 조온이 대궐 안에서 숙직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도진무청(都鎭撫廳)이었다.<sup>11)</sup> 친군위는 의흥친군위로서 시위를 담당하였으며 여기에 속한 군사들인 갑사가 근정전 이남에 숙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면 도진무청은 근정전의 행랑이나 홍례문 주변의 행랑에 있었을 것이며 행랑은 이들의 직속소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림 3> 창건시 중심영역의 추정배치도

경복궁의 창건기사에서 보이는 궐내각사는 廚房, 燈燭·引者房, 尙衣院, 兩殿司饗房, 尙書司, 承旨房, 內侍茶房, 敬興府, 中樞院, 三軍府 등이 있다. 주방이나 사옹방의 기능은 어

7) 『태종실록』 6년 병술(1406) 8월 5일(신묘)

8) 『태조실록』 6년 정축(1397) 4월 20일(임인)

9) 『태조실록』 7년 무인(1398) 1월 20일(무진)

10) 『태조실록』 7년 무인(1398) 8월 26일(기사)

11) 『세종실록』 20년 무오(1438) 9월 25일(병오)

떠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전사용방이라고 한 것을 보아 주방은 궐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양전사용방은 양전(兩殿)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로 판단된다.

등축인자방은 내시부에 소속된 부서이며 내시다방은 임금의 술시중이나 의례에서 다례를 담당하였으며 성중관으로서 근시직(近侍織)에 해당되었다. 경흥부는 중궁의 요속(僚屬)을 관장하였다.<sup>12)</sup>

중추원은 병기(兵機), 군정(軍政)과 숙위, 경비 등 군사관련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계복과 출납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계복과 출납은 승지방의 업무였다.

삼군부 중 중군은 시위사(侍衛司)라는 명칭으로 상장군과 대장군이 장군 이하의 군관을 거느리고 대궐 문에 윤번으로 시위를 담당하였다.<sup>13)</sup> 그리고 태조 6년 6월에는 삼군부를 지으라고 했는데 창건기사에는 문 남쪽 좌우에 의정부, 삼군부, 육조 등 각사공해(各司公廡)가 나누어 열 지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때 궁궐 밖으로 옮겨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추부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궐 밖에 위치하게 된다.<sup>14)</sup>

이처럼 창건 시 경복궁의 궐내각사로는 임금과 중궁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관아와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승지방과 숙위나 시위와 관련된 중추원과 삼군부 등이 있었다. 이때는 조선이 건국된 초기로서 이후 정국이 안정되면서 정부조직 역시 새롭게 개편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궐내각사들의 위치나 공간 역시 변화를 겪게 된다.

12) 『경국대전』 제1권 吏典 內侍府의 본문 및 註釋 그리고 『태조실록』 1년 임신(1392) 7월 28일(정미) 참조

13) 『태조실록』 3년(1394) 2월 29일

14) 중추부는 예조의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예조는 광화문 남쪽 오른쪽에 있었다. 李荇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권 京都下 참조

### 3. 중심영역의 공간변화와 궐내각사

#### 3-1. 중심영역의 변화

경복궁은 정종 1년 3월에 개성으로 천도하면서 공궐(空闕)이 되었다. 이후 세종이 경복궁으로 이어하여 생활하면서 경복궁의 공간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도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sup>15)</sup> 이들의 연구는 주로 세종시대 의례에 적합한 공간형성을 중심으로 중심공간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창건기사에 의하면 근정전의 북행랑이 사정전의 남행랑으로 바뀌었다.

사료 3-1 임금의 병환이 위급하니, 직집현 김예몽 등이 내의와 더불어 사정전의 남랑(南廊)에서 방서를 상고하고, 수양대군 이하의 여러 종친이 모두 있었다.<sup>16)</sup>

사료 3-1에 의하면 사정전 남쪽에 행랑이 있다. 문종 때는 궁궐 영건활동에 관해 특별한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종 때 근정전의 북행랑을 사정전의 남행랑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특히 창건시에 보평청의 남쪽에 동서방향으로 천랑을 만들었던 것은 보평청에 남랑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보평청 남쪽에 있던 천랑은 세종 11년에 상참과 조참의가 개정되고 이러한 의례를 고려하여 고쳐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sup>17)</sup> 보평청의 남랑으로 바뀐 것도 이때일 것이다.

창건기록을 바탕으로 오문에 연결되는 좌우행랑의 평면을 추정해보면 오문 3칸과 각루 2

15) 관순조, 앞의 논문 / 김동욱, 「조선초기 경복궁 수리에서 세종의 역할」, 건축역사연구 제11권 제4호 통권 32호, 2002. 12, 129-142쪽 / 장계혁, 앞의 논문

16) 『문종실록』 2년 임신(1452) 5월 14일(병오)

17) 김동욱, 위의 논문, 2002. 12, 135쪽

칸까지 포함하여 전체 칸수가 39칸으로 근정전의 남, 북행랑 29칸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어 오문의 동서쪽 행랑 밖으로 뻗어 돌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세종실록에 의하면 홍례문의 동서쪽에는 십자각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sup>18)</sup> 십자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누각의 형태가 십자(十字)의 모양이 아닐지라도 누각이 설치되는 위치가 두 개 이상의 벽이 교차해서 부분적인 십자모양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한다고 보면 홍례문에 연결되는 좌우 행랑이 근정전 남행랑의 동서부분에서 남으로 내려와 마주치는 부분에서 끝나고 여기에 누각을 세운 형식이라고 판단된다.<sup>19)</sup>

### 3-2. 중심영역의 궐내각사

경연은 임금과 관료가 만나는 중요한 업무였다. 창건 당시 경복궁에는 경연청이 없었다. 경연이 있을 경우에 시강을 할 경연관이 집현전에 모여서 진강할 글을 강론하면서 명령을 기다렸다가<sup>20)</sup> 사정전에 나아가 경연을 했다. 그런데 종종 때에는 사정전에서 진강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경복궁에도 경연청이 등장한다.<sup>21)</sup> 다만 경복궁의 경연청은 관료들이 경연을 준비하는 공간이었다.

사료 3-2 “... 다만 우리들이 조서를 받들어다 국왕에게 드리면 국왕께서는 꿇고 앉아 받아 후청(後廳)으로 보내시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 우의정 윤은보가 조서를 받들고 가니, 상이 후청(後廳)【곧 경연청(經筵廳)이다.】까지 따라가 용정(龍亭)에 안치하고서 재배(再拜)의 예를 행하였다.<sup>22)</sup>

사료 3-3 희춘은 다시 들어가 근정전의 북쪽 경연청 좌측으로 가서 문안을 드렸는데 정언지 조정기도 참여하였다.<sup>23)</sup>

사료 3-4 환궁을 하심으로 희춘은 또 경연의 번으로 따라 행하여 경연청의 북쪽에 이르러서 물러왔다.<sup>24)</sup>

사료 3-5 함께 경연청의 서쪽으로 가서 단자를 갖추어 사알에게 문안을 드린다고 칭하게 하니 승전색이 나와서 답을 하므로 신 등이 모두 땅에 엎드렸다. 드디어 경연청을 옆으로 지나 웅문루의 동쪽을 지나서 동궁에 이르러 의막으로 들어갔다.<sup>25)</sup>

사료 3-2는 중국 황태자의 탄생으로 조서를 반포하기 위해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조서를 놓는 곳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후청(後廳)’이라는 곳이 경연청이라 했으며 ‘후전(後殿)’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sup>26)</sup>

사료 3-3에서 경연청은 근정전의 북쪽에 있었고 사료 3-4에서는 경연청의 북쪽에 이르렀

18) 『세종실록』 15년 계축(1433) 10월 27일(병자) 및 같은 책 17년 을묘(1435) 12월 15일(임자) 참조. 『세조실록』 2년 병자(1456) 1월 9일(기묘)에서는 ‘樓’라는 명칭도 보인다.

19) 창건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근정전의 북행랑이나 남행랑과의 칸수의 차이가 많아서 돌출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는 없지만 이 부분이 돌출되었는지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 돌출부분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간이용의 측면에서 볼 때 남북축의 행랑보다 더 동서방향으로 돌출되고 각루가 그 끝에 설치되었을 경우 각루의 출입은 행랑의 밖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행랑의 계구부도 남쪽으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 『문종실록』 즉위년 경오(1450) 8월 28일(기해)

21) 『중종실록』 2년 정묘(1507) 5월 1일 (계묘)

22) 『중종실록』 32년 정유(1537) 3월 10일(기축)

23) 유희춘, 『미암일기』 3권, 壬申 十一月 初九日, 434쪽

24) 유희춘, 『미암일기』 1권, 戊辰 二月 二十八日, 215쪽

25) 유희춘, 『미암일기』 1권, 丁卯 十一月十二日, 81쪽

26) 『중종실록』 34년 기해(1539) 3월 8일(병자)

다고 했다. 만약 경연청이 근정전의 북쪽 행랑에 있었다면 경연청의 북은 곧 사정전 안의 남쪽이 되기 때문에 경연청은 행랑에 부속된 공간이 아니라 행랑과는 별도로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sup>27)</sup>

사료 3-5는 문안을 드리기 위해 경연청의 서쪽으로 갔다. 문안단자는 사정문을 통해 드렸을 것이며 경연청은 사정문의 동쪽에 위치했을 것이다. 그래서 경연청을 옆으로 지나 근정전의 동쪽에 있는 용문루를 지나게 될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경연청은 근정전의 북쪽, 사정문 밖의 동쪽에 독립된 건물로 배치되어 있었다.<sup>28)</sup>

중심영역에는 경연청 외에 빈청(賓廳)이 있었다. 빈청은 접대하거나 재상들이 대기하는 장소 또는 대신과 경제가 회의하는 곳<sup>29)</sup>으로 중요한 공간이었다.

사료 3-6 물러나와 노공과 함께 충의위의 직방에서 잤다. 바로 근정전 들의 서편이며 빈청의 남쪽이다.<sup>30)</sup>

사료 3-7 명하여 동빈청(東賓廳)에서 가지고 온 두목에게 공궤하게 하고 승지 한세환을 보내어 치사하게 하였다.<sup>31)</sup>

27) 유희춘, 『미암일기』 1권, 戊辰 六月二十八日, 400쪽. 이 기사에도 경연청의 북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28) 경복궁 창건기사에 수라간 4칸이 있었는데 이 수라칸의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정전영역에 위치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근정전 좌우 행랑의 대청성과 칸수를 고려했을 때 수라간이 행랑에 위치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창건시 수라간이 근정전의 북쪽에 독립된 건물로 위치해 있었을 것이다.

29) 『성종실록』 7년 병신(1476) 5월 15일(정사) 같은 책 16년 을사(1485) 7월 8일(병진) 및 이극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0권 관직전고(官職典故) 조참(朝參). ‘大臣卿宰會議之所’ 그리고 빈청은 창건 기사에는 보이지 않고 『세종실록』 9년 정미(1427) 11월 27일(신해)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빈청에 대한 쓰임을 실록에서 살펴보면 세종이나 문종 때에는 주로饋餉이나 賜宴을 하였는데 단종 이후에는 회의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궐향이나 사연을 하기도 하였다.

30) 유희춘, 『미암일기』 1권, 戊辰 六月 十六日, 388쪽  
건축역사연구 제20권 5호 통권78호 2011년 10월

사료 3-8 가선대부 이상의 문관을 패초(牌招)하여, 모두 경복궁의 빈청에 나아갔다. 빈청의 행랑은 길이가 무릇 몇 칸이나 되어 매우 널찍하였으나, 왕명을 받고 그 자리에 나온 재신들로 빈청이 가득하였다.<sup>32)</sup>

사료 3-6에 의하면 충의위가 근정전의 서편에 있으며 빈청은 충의위의 북쪽에 있었다. 사료 3-7은 중국의 사신이 두목을 시켜 물건을 바치자 동빈청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데 서빈청도 있었기 때문에<sup>33)</sup> 동, 서쪽에 각각 빈청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3-8에서는 대제학을 새로 선출하기 위해 종2품인 가선대부 이상의 문관을 불러들여 빈청에 모이게 했는데 그곳은 행랑이었다. 즉 근정전 서쪽 행랑에 있는 것이 서빈청이며 동쪽 행랑에 있는 것이 동빈청이었다.

궐내의 자물쇠와 열쇠를 관리하는 곳으로 액정서(掖庭署) 소속의 사약방(司鑰房)이 있는데 이 사약방도 중심영역에 있었다.

사료 3-9 전강의 시관으로서 광화문 밖으로 가서 앉아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평명에 문이 열려서 곧 근정전의 서편 사약방으로 들어가 앉았다.<sup>34)</sup>

사료 3-9는 근정전에서 실시하는 정시(庭試) 때의 일로 사약방이 근정전의 서편 즉 근정전 서쪽 행랑에 있었다.

경복궁의 중심영역에는 시위와 숙위를 위한 공간들도 존재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선전관원 8명이 윤번으로 대궐에서 입직

31) 『중종실록』 3년 무진(1508) 6월 26일(임진)

32) 윤근수(尹根壽) 『월정만필(月汀漫筆)』

33) 『중종실록』 11년 병자(1516) 6월 27일(정축)

34) 유희춘, 『미암일기』 4권, 甲戌 五月初一日, 544쪽

한다고 하였는데 세조 3년에 사정전 동랑(東廊)에 입직하도록 하였다.<sup>35)</sup> 이후 선전관청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기록에는 없지만 작은 일들을 선전관을 통하여 계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sup>36)</sup> 계속 사정전의 행랑에 위치했을 것이다.

임금을 시위하는 최측근 군사로 가장 중요한 조직은 내금위와 검사복이다.<sup>37)</sup>

사료 3-10 “…… 검사복(兼司僕)과 병조의 관리도 또한 숙직하게 하라.” 하니, 이때부터 군사는 사정전 행랑에서, 병조당상·도진무(都鎭撫)는 근정전 동랑(東廊)에서 숙직하였다.<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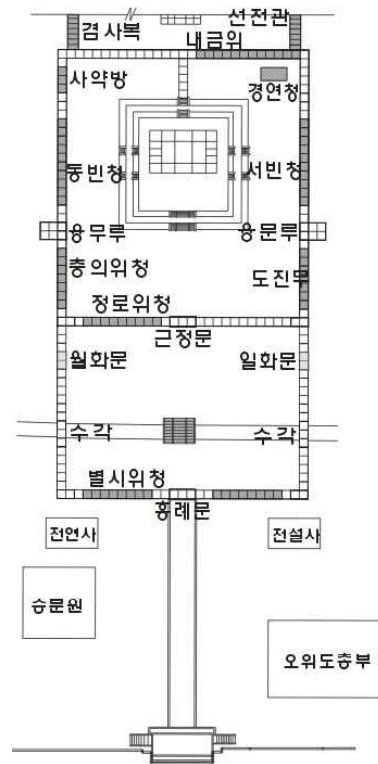
사료 3-11 내금위는 전소(前所)에 입직하고 검사복은 경회루의 근처에 입직하여, 이와 같이 내금위는 대내의 동남쪽 모서리에서 숙직하고, 검사복은 대내의 서북쪽 모서리에서 숙직하니...<sup>39)</sup>

사료 3-12 광화문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들어갔다. 근정전의 남쪽 장청에 이르러 민공 기문을 만났다.<sup>40)</sup>

사료 3-10에서 군사를 사정전 행랑에서 숙직하게 하였는데 군사는 검사복을 의미할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 내금위는 정전 남쪽의 행랑에서 숙위한다고 하였는데 사료 3-11에서는 대내의 동남쪽 모서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근정전의 남쪽에는 성종 때 설치한 정로위청이 위치하고 있었다.<sup>41)</sup> 따라서 『동국여지승람』

에서 말하는 정전 남쪽이란 사정전 남쪽 행랑으로 해석된다. 즉 내금위는 사정전의 남쪽 행랑에서, 검사복은 사정전의 서쪽 행랑에서 숙위하였을 것이다.

앞의 사료 3-6에서 보았듯이 오위도총부의 오위 중 충좌위(忠佐衛) 소속인 충의위는 근정전 서쪽 행랑, 빈청의 남쪽에 있었다. 사료 3-12에 의하면 근정전의 남쪽에 장청이 있는데 정로위청을 가리킨다.<sup>42)</sup>



<그림 4> 경복궁 중심영역의 궐내각사 추정배치도

근정문과 홍례문 사이에 있는 행랑에도 역시 시위군들이 입직하고 있었는데 별시위청이 그 예이다.<sup>43)</sup>

이외에도 우림위 등의 시위군과 그들의 업

35) 『세조실록』 3년 정축(1457) 3월 29일(임진)

36) 『세조실록』 13년 정해(1467) 4월 29일(갑자)

37) 『문종실록』 1년 신미(1451) 6월 8일(을해) 및 『중종실록』 33년 무술(1538) 8월 6일(병오) 등 참조

38) 『세조실록』 2년 병자(1456) 1월 1일(신미)

39) 『세조실록』 10년 갑신(1464) 8월 1일(임오)

40) 유희춘, 『미암일기』 3권, 癸酉 四月 三十日, 686쪽

41) 유희춘, 『미암일기』 4권, 甲戌 八月初一日, 711쪽

42) 위와 동일

43) 유희춘, 『미암일기』 1권, 戊辰年 七月初二日, 405쪽  
건축역사연구 제20권 5호 통권78호 2011년 10월

무공간인 청(廳)이 있었는데 이들도 역시 근정전 주변의 행랑이나 흥례문 주변의 행랑에 입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4)</sup>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경복궁 중심영역의 궐내각사를 추정하면 <그림 4>와 같다.

#### 4. 궐내각사의 위치추정

경복궁 창건기사에 보이는 궐내각사는 불과 10곳 남짓만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당시 경복궁의 모습은 중심영역이 웅장한 규모로 있었고<sup>45)</sup> 그 주위의 넓은 궁궐 터에 듬성듬성 궐내각사가 있었다. 경복궁의 중심영역은 세종 때 와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궐내각사가 들어서는 공간도 역시 세종 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세종 10년 8월에는 집현전의 장서각을 설치하였다.<sup>46)</sup> 16년 7월에는 보루각, 20년 1월에는 흥경각이 완성되었다. 22년 4월에는 상서사와 춘추관을 영건하였으며 25년 5월에는 궐 밖의 승문원을 궐내에 설치하였다. 이처럼 세종 때

44) 유희춘, 『미암일기』 2권, 庚午 九月 十四日, 536쪽에 의하면 羽林衛將廳이 궐내에 있었는데 兼司僕과 內禁衛, 羽林衛 모두 禁軍이라고 한 것을 보면(『성종실록』 24년 계축(1493) 7월 20일(임자) 참조) 우립위의 입직장소도 내금위나 겸사복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5) 김종직(金宗直)의 시에 의하면 용문, 용무루가 ‘나는 새의 등이 보이고 근정전과 높이를 겨룰’ 정도로 높다고 하였다. 시로서 과장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樓의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으며 누각에 비례해서 주변의 행랑도 웅장한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직(金宗直) 점필재집(佔畢齋集) 시집 제6권 [시(詩)] 문무루에서 서적을 구경하다[文武樓觀書籍]

46) 원래 집현전은 관청이나 직무가 없이 관직만 있었는데 세종 2년에 궁중에 관사(官司)를 두었다. (『세종실록』 2년 경자(1420) 3월 16일) 경복궁에서는 집현전 장서각을 세우도록 하였는데(세종 10년 무신(1428) 8월 7일(병술)) 이때 집현전과 장서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세종 때 세운 집현전에 장서각을 추가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

여러 아문들이 궐내에 배치되면서 궐내각사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궐내각사의 위치를 기록한 고문헌이 몇 가지가 있다. 이들 문헌들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먼저 『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궐내각사부분에서 거의 같고 다만 내반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동국여지비고』의 경우에도 거의 같지만 『동국여지비고』에서는 상의원이 관상감 북쪽이라는 내용이 추가되고 경복궁의 내금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자문감은 창덕궁 금호문밖, 오위도총부는 광화문 동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다. 아래의 [표 1]은 『동국여지승람』과 『궁궐지(宮闕志)』에 나타난 궐내각사의 위치를 요약한 것이다.<sup>47)</sup>

본 논문에서는 조선 전기의 궁궐을 반영하는 『동국여지승람』을 주요 전거로 해서 궐내각사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중심부의 전각명칭이나 궐내각사의 『신증』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동국여지승람』이 기록된 성종 이후 경복궁 내 궐내각사의 위치변화는 많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궐내각사의 위치상 기준점은 승정원이 될 수 있다. 승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왕명출납이다. 왕명출납은 관료와 임금을 매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궁궐의 동선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라 할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승정원은 월화문 밖에 있었다.

47) 『增補文獻備考』나 『景宮誌』는 내용이 소략하고 위치가 기록된 궐내각사라 해도 『동국여지승람』이나 『동국여지비고』와 차이가 없어서 생략했다. 궁궐지의 경우 『宮闕志 I』(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번역, 1994. 12) 그리고 『增補文獻備考』와 『景宮誌』는 『景福宮 寢殿地域發掘調査報告書』(국립문화재연구소 『景福宮 寢殿地域發掘調査報告書』, 1995. 12)를 참고하였다.



[표 1] 『동국여지승람』과 『궁궐지』에 보이는 궐내각사의 위치 비교

관아명	東國輿地勝覽	宮闕志
경연청	(없음)	(없음)
관상감	상의원남쪽	상의원남쪽
교서관	사용원남쪽(內館)	(없음)
내반원	신중]경회남문서쪽	경회문서쪽
내의원	관상감남쪽	관상감남쪽
보루각	경회루남쪽	경회루남쪽
빈청	(없음)	(없음)
사도시	금호문밖 이전	(없음)
사복시	영추문안(內寺)	태복시(영추문안)
사용원	승정원남쪽	승정원남쪽
상서원	보루각남쪽	보루각동쪽
상의원	영추문 안	영추문 안
승문원	홍례문밖	홍례문밖
승정원	월화문 밖	월화문 밖
예문관	승정원서쪽	승정원서쪽
자문감	궐내	(없음)
전철사	홍례문동쪽	홍례문동쪽
전연사	홍례문서쪽	홍례문서쪽
집현전	홍문관으로 바뀜	홍문관으로 바뀜
춘추관	상서원서쪽	상서원서쪽
홍문관	승정원서쪽	승정원서쪽
내금위	정전남쪽행랑	(없음)
선전관	대궐안에 입직	(없음)
도총부	광화문안 동쪽	광화문안

홍문관은 세종 때의 집현전이다. 세종 10년 8월에 집현전에 장서각을 세우도록 하고 다음 해인 세종 11년에 장서각 5칸이 집현전 북쪽에 세워졌다.<sup>48)</sup> 세조 2년에는 집현전을 폐하였다가 성종 원년에 홍문관을 집현전의 전례대로 하게 하였다. 홍문관은<sup>49)</sup> 승정원의 서쪽에 있었다.

사료 4-1. 인배사령이 돌아와 보고한 뒤에 나는 관대를 갖추고 금란문(金鑾門)을 나서서 서문(西門)으로 향하였다. 성낙이 공복을 입고 보루문에 앉아서 장막 틈으로 나를 보고 …… 그대로 서문

48) 『동문선(東文選)』 제50권 송(頌) 집현전장서각 송(集賢殿藏書閣頌) 이계전(李季旬)

49) 홍문관은 내부(內府)의 경적(經籍)과 경연 그리고 문헌(文翰)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으로 나아가니, 성낙은 내 손을 잡고 놓지 않고 서로 힐난하는 동안에 서문 안 상의원(尙衣院)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sup>50)</sup>

사료 4-1에서 금란문은 홍문관의 문인데 홍문관에서 서문으로 나갈 때는 보루문에 설치된 장막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예문관 역시 승정원의 서쪽에 있으며, 사명(辭命)을 짓는 일을 담당하였다.

사용원(司饗院)은 원래 사용방이었는데 세조 13년에 사용방을 사용원으로 고쳤다.<sup>51)</sup>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사용원은 승정원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사용원의 남쪽에는 교서관<sup>52)</sup>이 있었다. 교서관은 운각(芸閣)이라고도 한다. 내관과 외관이 있는데 궁궐 안에 있는 것을 내관이라고 한다.

사료 4-2. 수각의 서쪽엔 외나무다리 가로질러 있고 열흘 동안의 매우는 완전히 개지 않았는데 옷 걸고 나막신 차림으로 와서 서로 만나니<sup>53)</sup>

사료 4-2의 일은 김종직이 교서관에서 근무했을 때의 일로 판단되는데 장마철에 동년(同年)으로 정3품 당하관인 사용원 정(正)이었던 정영통(鄭永通)이 외나무다리를 건너 운향각, 즉 교서관에 있던 김종직을 만나러 오는 모습이다. 이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용원

50) 윤국형(尹國馨) 『갑진만록(甲辰漫錄)』

51) 경복궁의 창건기사에 의하면 양전(兩殿)의 사용방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때는 양전의 음식만 담당했던 것이 이후에 궐내 여러 빈객(賓客)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다. 세조 25년 계해(1443) 8월 2일(갑신) 참조

52) 교서관은 경적(經籍)의 인쇄나 반포, 향축, 인장전각(印章篆刻) 등을 담당하였다

53) 김종직(金宗直) 『점필재집(佔畢齋集)』 시집 제18권 [시(詩)] 정 사용원 정이 사용원으로부터 나막신을 신고 걸어서 담화를 나누고 또 시를 지었으므로 차운하다[鄭正自司饗院步履來話且有詩次韻]

과 교서관 사이에 금천이 있고 그 위에 외나 무다리가 놓여있었다는 점이다. 수각은 흥례문 안쪽 금천의 서쪽에 있는 수각을 말한다.

승문원(承文院)은 일명 괴원(槐院)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궁궐 밖에 있던 것을 승문원 제조 안승선의 요구로 세종 25년 5월에 궁궐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흥례문 밖에 있다고 하였다.

사료 4-3 괴원은 경복궁의 광화문 안에 있는데, 아주 높다면 장서각이 있어서 중국의 고책과 여러 서적을 소장하였다. ······ 본원으로부터 한림이나 주서가 되는 것을 서비(西飛)라고 하는데, 이것은 괴원이 동쪽에 있기 때문이다.<sup>5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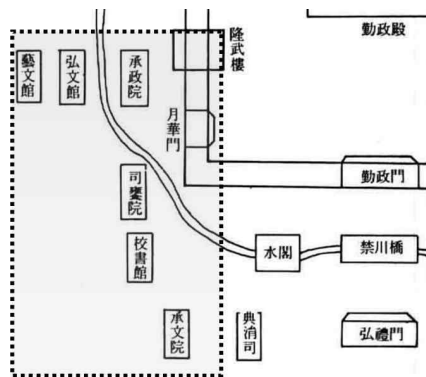
한림은 예문관 관원이고 주서는 승정원의 관원인데 사료 4-3에 의하면 승문원은 예문관이나 승정원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승문원 북쪽 모퉁이에 장서각이 있었고 장서각 동쪽 처마 밑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sup>55)</sup>

<그림 5>와 <그림 6>은 18세기 이후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임진왜란 이전의 경복궁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 이 그림들은 승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분이다. <그림 5>에서는 승정원과 사옹원 사이에 금천이 위치하며 사옹원 남쪽에 교서관이 있는데 사옹원이나 교서관 모두 금천의 남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교서관의 동남쪽에 승문원이 있다. 반면 <그림 6>에서는 사옹원과 교서관 사이에 금천이 놓여있다. 그리고 승정원의 위치와 사료 4-3을 참고하면 승문원은 승정원의 동남쪽에 위치해야 한다. 두 그림 모두 승문원이 승정원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정원의 서쪽으로 흥문관과 예

문관이 차례로 있는 것은 동일하다.

보루각은 세종 16년 경희루 남쪽에 3영(楹)으로 지어 새로 만든 누기(漏器)를 보관했던 건물로 세종 22년에 월화문 밖의 새 문을 보루문이라 칭한 것은<sup>56)</sup> 아마도 보루각의 출입문일 것이다. 그런데 보루문에 올라가 북이나 정을 쳤다는<sup>57)</sup> 기록을 보면 보루문에 종루나 고루의 유무는 알 수 없지만 없었다고 해도 보루문의 크기는 궐내각사의 문보다는 규모가 컸을 것이다.

세종 30년에 임금을 대신해서 세자가 조참을 받을 곳을 논의하는 과정에 보루문도 거론되는데 보루문은 대궐을 등졌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였다.<sup>58)</sup> 보루각이 경희루 남쪽, 근정전의 서쪽에 위치하였는데 대궐을 등졌다고 하는 것은 보루문이 서쪽으로 향했다는 의미이다.



<그림 5>景福宮全圖 (삼성출판박물관소장) 부분

세종 30년에 임금을 대신해서 세자가 조참을 받을 곳을 논의하는 과정에 보루문도 거론되는데 보루문은 대궐을 등졌기 때문에 불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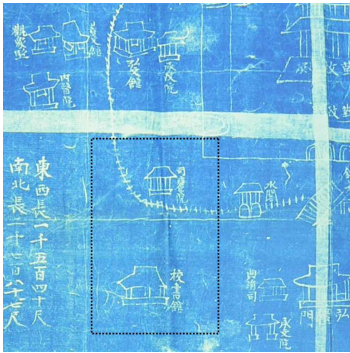
54) 李睟光, 『芝峯類說』 卷十七 雜事部 故實

55) 具鳳齡, 『栢潭先生續集』 卷之二 七言絕句 槐院藏書閣東簷下有小池。適新霽水溢。令院中小丁。戲以竹葉如船浮之。宛有江湖之興。

56) 『세종실록』 22년 경신(1440) 5월 26일 (정묘)

57) 『세조실록』 14년 무자(1468) 5월 3일 (임술) 및 『중종실록』 2년 정묘(1507) 3월 22일(을축)

58) 『세종실록』 30년 무진(1448) 11월 8일(경인)



<그림 6> 景福宮古圖  
(서울대 중앙도서관소장) 부분

다고 하였다.<sup>59)</sup> 보루각이 경회루 남쪽, 근정전의 서쪽에 위치하였는데 대궐을 등졌다는 것은 보루문이 서쪽으로 향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상서원(尙瑞院)<sup>60)</sup>은 창건시부터 궐내에 설치되었지만 창건 당시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보루각의 남쪽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춘추관<sup>61)</sup>은 원래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이던 것을 태종 1년 7월에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누고 춘추관은 검관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세종 때 춘추관과 상서사를 궐내에 새로 영건하였다.

사료 4-4 집현전 북쪽과 보루각 남쪽 사이에 넓고 조용한 빈터가 있었는데, 하루는 임금께서 선공감에 명하여 춘추관과 상서사를 그 동쪽과 서쪽에 새로 지어 실록과 보새를 모셔 두게 하고, 또 그 서남쪽에 행랑 30여 칸을 둘러서 세우게 하였다.<sup>62)</sup>

사료 4-5 대궐 안의 쌀 저장할 만한 곳

으로는 춘추관의 담장 밖에 빈 행랑이 있습니다.……63)

사료 4-6 (경회루의) 서편이 매우 드러나 있으니, 근정전 서쪽 문에서 똑바로 영추문에 이르기까지 상서원·보루각·춘추관 등처의 사람과 물건은 모두 치우고 향시 문을 닫아 둘 것이며, 가시[荊棘]로 둘러싸게 하라.<sup>64)</sup>

사료 4-4는 승정원의 신당(新堂) 기문으로 경회루 남쪽에 보루각이 있고 그 남쪽에 집현전이 있었다. 세종이 이 사이에 있는 공터의 동쪽과 서쪽에 상서사, 춘추관을 세우도록 하였다. 상서원의 위치에 대해서 『동국여지승람』에서는 보루각의 남쪽이라 하였고 『궁궐지』에서는 보루각 동쪽이라고 했다. 춘추관의 위치는 모두 상서원의 서쪽이라 한 것을 보면 상서원의 위치는 보루각의 동남쪽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건물을 세우고서 장무(長廡)에 가까워 화재시 연소될까 우려하여 화재방비 대책을 의논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sup>65)</sup> 장무라는 곳은 근정전의 서쪽 행랑으로 판단된다. 즉 상서사가 근정전 서쪽 행랑에 가깝게 있었기 때문이다. 상서원의 위치로 판단해보면 그 남쪽에는 승정원이 위치해 있었다.

사료 4-5에서는 병조에서 대궐 안에 쌀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춘추관 담장 밖의 빈 행랑을 거론하고 있다. 이 행랑은 위치로 보아 사료 4-4에서 말하는 서남쪽의 행랑 30여 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료 4-6은 연산군 때의 일로 대비가 경회루에 임어할 때를 대비해서 취한 조치이다. 이

59) 『세종실록』 30년 무진(1448) 11월 8일(경인)

60) 상서원은 재보(璽寶)와 부패(符牌), 절월(節鉞)을 담당했다.

61)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62) 이행(李衍)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2권 경도하(京都下) 문직공서, 승정원조

63) 『중종실록』 20년 을유(1525) 10월 3일(무자)

64) 『연산군일기』 11년 을축(1505) 11월 12일(계사)

65) 『세종실록』 22년 경신(1440) 4월 15일(병술)

사료로 판단해보면 근정전의 서쪽 문에서 영추문까지 길이 있고 그 길의 북쪽에 동에서 서로 상서원, 보루각, 춘추관 등이 있었고 그곳을 차단하도록 명하였다. 다른 사료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이 전각들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지는 않았고 보루각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영추문에서 상서원까지 가는 도중에는 영의문(迎義門)이 있는데<sup>66)</sup> 이 문은 특정 관아의 정문이 아니라 궐내각사의 행랑이나 담에 의해 형성된 골목에 설치된 문으로 영추문 안에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영의문은 영추문에 가까이 있었다.<sup>67)</sup>

상의원<sup>68)</sup>은 영추문 안에 있었다. 사료 4-1을 보면 상의원은 서문 즉 영추문에 가장 가깝게 있었을 것이다. 서문으로 나갈 때 상의원의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상의원은 도로의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종 1년에는 상의원의 문 밖 길 쪽에 큰 집 10여 영(檻)을 짓는데<sup>69)</sup> 그 주변에는 넓은 공간이 있었다.

관상감은 원래 서운관이었는데 서운관과 별도로 궐내에 금루방(禁漏房)이 있어서 누각(漏刻)을 담당했다. 궁궐 내에 관상감을 설치한 것은 세종 2년 3월로<sup>70)</sup> 이때는 창덕궁에서의 일이었다. 세종은 경복궁에서도 간의대와 보루각 등 천문관측과 관련된 전각들을 지으면서 서운관이 번갈아가면서 입직하도록 하였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궐내의 관상감은 상의원 남쪽에 있었다.

내의원<sup>71)</sup>은 관상감의 남쪽에 있었으며 내의원의 남쪽에는 원래 사도시(司導寺)가<sup>72)</sup> 있었다.

사료 4-7 사도시는 조종조에서 본디 궐내에 두었는데, 창덕궁에 이어하신 뒤부터 비로소 궐외에 두었습니다. 그 궐내의 본사는 지금 위장 서소(衛將西所)가 되었으므로, 다시 궐내에 둔다면 고각(庫閣)을 다시 지어야 하니, 즉시 할 수는 없습니다.<sup>73)</sup>

사료 4-8 처음 대궐에 들어갈 적에 산대의 기계가 가로막고 있어서 광화문으로 해서 내의원, 관상감, 교서관, 홍문관의 앞을 지나 보루문의 곁에 이르렀다.<sup>74)</sup>

사료 4-7과 같이 경복궁의 사도시가 성종이 창덕궁으로 이어하면서 창덕궁 금호문 밖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리고 경복궁의 사도시 건물은 서소로 사용되었다. 원래 궁성 주위 4개의 문을 지키는 위장과 군사가 있는데 여기에 소(所)를 세워 東, 所, 南, 北所라 하였다. 이곳에 모두 군영이 있었는데 예종 1년 때까지만 해도 좁아서 겨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머물러야 했다. 그래서 서소의 경우 사복시 밑에다 초가를 짓도록 하였고.<sup>75)</sup> 몇 개월 후에는 직속 군사들을 위해 가가(假家) 10칸을 영추문 안에 짓도록 하였다.<sup>76)</sup> 그러다가 사도

66) 유희춘, 『미암일기』 1권, 丁卯 十一月 初一日, 60쪽

67) 『세종실록』 22년 경신(1440) 5월 26일(정묘)

68) 임금의 의복과 내부(內府)의 제화, 금은보화 등을 관장했다.

69) 『문종실록』 1년 신미(1451) 9월 30일 (을축)

70) 이극익(李育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5권 천문전고(天文典故) 첨성(瞻星)

건축역사연구 제20권 5호 통권78호 2011년 10월

71) 내의원은 임금의 약을 화제(和劑)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72) 사도시는 어용 창고의 미곡과 궐내에 공급하는 장(醬)과 같은 물품을 담당했다.

73) 『중종실록』 19년 갑신(1524) 5월 29일(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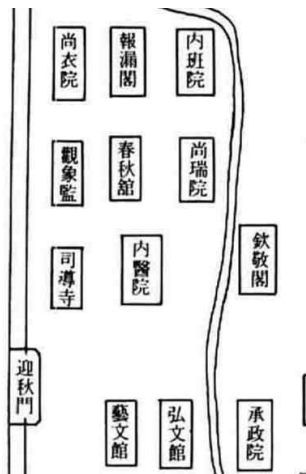
74) 유희춘, 『미암일기』 1권, 丁卯 十一月十七日, 89쪽

75) 『예종실록』 1년 기축(1469) 5월 7일(경인)

76) 『예종실록』 1년 기축(1469) 10월 6일(병진)

시가 궐 밖으로 나가면서 그 곳을 서소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내의원 남쪽에 있던 사도시가 옮겨 갔기 때문에 성종 이후에는 궁궐에 존재하지 않았다. 아래의 <그림 7>은 궁궐의 서남부에 위치한 궐내각사의 일부분인데 상의원 남쪽에 관상감, 그 남쪽에 사도시, 사도시 동쪽으로 내의원이 있다.



<그림 7> 景福宮全圖 (삼성출판박물관소장) 부분 2

사료 4-8에 의하면 광화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내의원을 지났으며 그 북쪽에 관상감이 있었다. 그런데 사도시나 서소를 지나고 있지는 않다. 아마도 서소는 영추문을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영추문에 가깝게 그 남쪽에 위치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료 4-2의 다리는 교서관과 홍문관 사이에 있었던 것 같다. 광화문에서 보루문까지 가는 도중에 상의원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상의원은 서문과 보루문을 연결하는 도로의 북쪽, 서문에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사복시(司僕寺)는<sup>77)</sup> 내사복과 외사복시가

77) 사복시는 임금의 타는 수레와 말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있으며 내사복은 연추문 안에 있었다. 세종 때 간의대를 만들고 사복시 안에 집을 지어서 서운관원들이 숙직하며 기상을 관측하게 하려고 한 것을 보면 내사복은 간의대에서 멀지 않은 곳, 즉 경회루의 서쪽이나 서북쪽에 위치했었다. 또한 내사복시 북쪽 땅에 못을 파고 도랑을 내어 영제교로 물을 끌고자 한 것으로 보아 내사복시의 위치가 영제교에 이르는 서쪽의 도랑과 관련이 있었다.

경복궁을 창건했을 때 내시부는 궁궐 밖에 있었고 궁궐 안에는 ‘내소방(內小房)’을 두었는데 성종 때 이를 내반원(內班院)이라고 하였다. 창건시의 ‘내소방’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성종 이후 내반원은 경회문 밖의 서쪽에 있었다.<sup>78)</sup> <그림 7>에 의하면 내반원은 보루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사헌부는 광화문 남쪽의 오른편, 중추부 남쪽에 위치하였으며 사간원은 북부 관광방에 위치하는 등 모두 궐 밖에 있었다. 그러나 궐내에도 대간청(臺諫廳)이라 하여 사헌부나 사간원 소속의 관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 존재했었다.

사료 4-9 조종조에는 대궐 안에 현재 대간청 및 서소가 곧 곡식을 축적해 둔 곳이었는데, 폐조(廢朝) 때 남김없이 탕진했습니다.<sup>79)</sup>

사료 4-10 신들이 입궐하여 대간청에 들어가 앉아 있는지 오래 지 않아서 하리(下吏)들이 ‘대간청 중문(中門) 안 건너편 헛간 벽 위에 무슨 패(牌)가 걸려 있다.’ 하기에……<sup>80)</sup>

78) 『명종실록』 즉위년 을사(1545) 9월 8일(무진), 『동국여지승람』에는 경회남문 서쪽에 있다고 했다.

79) 『중종실록』 20년 을유(1525) 10월 2일(정해)

80) 『중종실록』 28년 계사(1533) 7월 20일(신유)

사료 4-7에 의하면 곡식을 축적해 둔 곳이 사도시이고 이곳이 서소가 되었다. 그런데 사료 4-9에서는 서소뿐만 아니라 대간청도 역시 곡식을 저장했던 곳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대간청은 원래 사도시 건물의 일부이거나 아니면 그 주변 즉 내의원의 남쪽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간의 위상과 업무성격상 서소와 대간청이 하나의 공간에 배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료 4-10에 의하면 대간청 중문이 있었는데 중문이라는 곳이 홍문관 관원과 대간이 왕래하는 곳<sup>81)</sup>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 문 역시 골목에 세워진 문이다.

그리고 교서관에서 경회루로 갈 때 몇 개의 문을 거쳐서 갔다고<sup>82)</sup> 한 것을 보면 궐내각사가 각각의 행랑이나 담장으로 둘러싸이고 그 사이에 골목길이 형성 되고 이 골목길에는 문이 설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사료 4-5에서 춘추관 밖에 빈 행랑이 있었다. 당시에는 임금이 경복궁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궐내각사가 이용되고 있었다. 빈 행랑이라 한다면 아마도 특정한 관아에 소속된 건물이 아니라 공간의 차단을 겸하여 행랑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로 판단된다. 따라서 궐내각사의 공간은 각 관아의 행랑이나 담장으로 둘러싸이고 개별적인 행랑과 함께 골목을 형성하며 그 중간 중간에 문을 설치하여 공간을 차단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홍문관이 승정원의 서쪽에 있었는데 대간청 역시 승정원의 서쪽에 있었다.<sup>83)</sup>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보면 서쪽으로부터 대간청이 있고 홍문관 그리고 승정원이 월화문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병조는 광화문 밖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궐 내에는 별도로 내병조가 있었다. 내병조 외에 병조 소속의 오위도총부가 있으며 이 둘은 별개로 존재했다. 내병조는 난잡을 금하고 절도(竊盜)를 잡아내어 궁위(宮闈)를 엄하게 하게 하고 출입을 삼가게 하려 한 것이고<sup>84)</sup> 오위도총부는 궁궐의 숙위와 시위를 담당하였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경복궁의 내병조에 관한 기록은 없다.<sup>85)</sup>

사료 4-11 하루는 상이 변방의 일로 병조 판서를 부르니 이이가 즉시 대궐로 갔는데, 마침 헌기증이 갑자기 일어났으므로 부축해서 내조(內曹)의 숙직실에 들였다. 그런데 숙직실이 승정원의 문 밖에 있었으므로 승지가 명을 받고 들어오면서 마침 병이 생긴 사실을 보고 드리니………<sup>86)</sup>

사료 4-11에 의하면 내조의 숙직실이 승정원의 문 밖에 있었으며 대궐 문에서 승정원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다. 내조의 숙직실이 내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록에서는 내병조라고 한 것이다.<sup>87)</sup> 그리고 오위도총부는

84) 『명종실록』 14년 기미(1559) 1월 3일(을해)

85) 성현의 용재총화에 의하면 병조 판서 안승선(安崇善)이 승문원 제조(提調)가 되어 내병조(內兵曹)를 경복궁 광화문 안의 동쪽 구석에 만들었는데, 안승선이 이 건물을 승문원에서 쓰도록 요구하였고 임금이 윤허하여 비로소 승문원이 궁궐내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성현(成俔) 『용재총화(慵齋叢話)』 제8권) 그런데 실록에 의하면 안승선이 승문원의 제조였는데 병조판서가 아닌 형조판서였으며 승문원을 궁궐 안으로 옮기도록 요청해서 옮기게 되었다. (『세종실록』 25년 계해(1443) 5월 3일(정사)) 그리고 승문원의 위치는 광화문 동쪽 구석이 아니라 홍례문 밖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용재총화의 내용은 잘못된 내용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광화문 안 동쪽은 오위도총부가 위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86) 『선조 수정실록』 16년 계미(1583) 6월 1일(신해)

87) 禹性傳 『계갑일록(癸甲日錄)』 만력 11년 계미(萬曆十一年癸未, 1583년) 6월 3일 기사 또 미상(未詳) 『계미기사(癸未記事)』 계미년(서기 1583년)

81) 위의 책, 8월 14일(갑신)

82) 차천로(車天輅) 『오산설림초고(五山說林草藁)』 구종직(丘從直)전

83) 『명종실록』 7년 임자(1552) 8월 8일(무오)

광화문 안 동쪽에 위치하였다.

충호위(忠扈衛)는 세조 때 전설사(典設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sup>88)</sup> 흥례문의 동쪽에 있었으며 병조 소속인 오위도총부와 근접해 있었을 것이다. 전연사(典涓司)<sup>89)</sup>원래 경복궁 제거사(景福宮提舉司)였는데 세조 12년에 전연사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위치는 흥례문의 서쪽에 있었다.



<그림 8> 경복궁 궐내각사 추정배치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궐내각사의 위치를 추정해보면 <그림 8>과 같다. 각 아문의 규모는 아문의 품질(品秩)을 고려하고 실직(實職)과 겸직(兼職)의 여부도 고려했다. 또한 아전이나 공장 등의 수를 고려하여 관아 전체의 규모를 비교 추정하였다.

지금까지 검토한 궐내각사 뿐만 아니라 충찬위청(忠贊衛廳), 우림위장청(羽林衛將廳), 자

문감(紫門繕工監, 紫門軍器監) 등 여러 아문들이 존재했지만 이들의 위치는 확인할 수 없었다.

### 5. 결론

지금까지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기본으로 하고 실록과 문헌자료들을 통하여 경복궁에 위치한 궐내각사의 건축공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창건시 경복궁의 궐내각사는 많지 않았는데 세종 때에 들어와서 여러 아문들이 궁궐 내에 설치되면서 궐내각사의 공간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갔다.

중심영역의 건축공간을 보면 사정전 행랑에 선전관, 검사복, 내금위 등 임금의 최측근 시위군이 직속하였다.

근정전의 행랑에는 동, 서 빈청이 각각 동행랑과 서행랑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사약방이 역시 근정전의 행랑에 있었다. 그 외에 충의위청과 정로위청, 도진무 등의 시위군 관아와 직속공간이 역시 행랑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경연을 위해 경연관들이 준비 또는 대기하는 공간으로서의 경연청은 근정전의 동북쪽에 행랑과는 별도로 존재했었다. 흥례문 서쪽행랑에도 역시 별시위청이 있었는데 그 주변의 행랑 역시 시위군들의 관아나 직속하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중심공간 외의 궐내각사의 공간구조는 각각의 관아가 행랑이나 담장으로 둘러싸여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고 그 사이에 골목길이 생기게 되며 이곳에 문을 설치하였다.

중심공간 외의 궐내각사에 대한 배치를 추정하였는데(그림 9 참조) 18세기 이후에 그려진 그림들과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6월 11일조 등 참조.

88) 『세조실록』 12년 병술(1466) 1월 15일(무오)

89) 전연사는 궁궐의 청소와 정리하는 일을 담당했다.

## 78 논문

본 논문에서도 문헌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는 문헌기록이 자세하지 않고 기록할 때도 건물명을 생략하여 기록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궐내각사의 존재나 기록시기와 설치된 시기의 차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접수(2011. 8. 13)

수정(1차: 2011. 9. 20, 2차: 2011. 10. 4)

게재확정(2011. 10. 10)

### <참고문헌>

1. 『經國大典』, 국회도서관제공(누리미디어) 국역본 및 원문
2. 『宮闕志 I』,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번역, 1994. 12
3.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전번역원제공 번역본 및 원문
4. 『조선왕조실록』, 태조-선조(고전번역원 제공의 번역본 및 원문)
5. 柳希春, 『미암일기(眉巖日記草)』 제1-5집, 潭陽鄉土文化硏究會(번역본), 國學資料院, 1982(원문)
6. 광순조, 「宮闕運營을 통하여 본 朝鮮前期 景福宮의 配置特性에 關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7. 김동욱, 「조선초기 창건 경복궁의 공간구성」, 건축역사연구 제7권 2호(통권 15호), 1998. 6
8. 김동욱, 「조선초기 경복궁 수리에서 세종의 역할」, 건축역사연구 제11권 제4호 통권32호, 2002. 12
9. 문화재청 『景福宮變遷史 上,下』 동아원색, 서울, 2007. 8
10. 이강근, 『경복궁』, 대원사, 서울, 1998. 8
11. 장재혁, 「조선전기 경복궁의 건축형식에 관한 연구: 예서에서 나타나는 예제운영과 건축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2004. 2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Space of Gwolnaegaksa at Gyeongbokgung in the Early Joseon Dynasty

Yi, Jeong-Kuk  
(Dari Architects & Engineers)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rchitectural space of Gwolnaegaksa (闕內各司), the Government office in the palac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Royal palace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political space for king, living space for king and his family and government office. So first, we shoul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in the Royal Palace.

Up to now we have looked at the architectural space of Gwolnaegaksa in Gyeongbokgung (景福宮), one of the Royal Palac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s.

There were not many Gwolnaegaksas in the early days in Gyeongbokgung. After King Sejong, some office buildings were established in that palace.

King's closest guards, like as Seonjeonkwan (宣傳官), Gyumsabok (兼司僕), Naegeumwi (內禁衛) had been on duty in Sajeongjeon Haengrang (思政殿 行廊), a kind of servants' quarters. Bincheong (賓廳), a conference room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as situated in Geungjeon Haengrang (勤政殿 行廊). There were also barracks of other palace guards in Geungjeon Haengrang. Gyeongyeoncheong (經筵廳), a place to prepare and wait, was built separately from Geungjeon Haengrang

Layout drawings of Gyeongbokgung painted since the 18th century were different from document in some parts.

The arrangement of the Gwolnaegaksa was assumed like as the Fig. 9.

---

Keywords : Gyeongbokgung, Geungjeon, Gwolnaegaksa, Haengrang, Space Composition

---